

JET 프로그램 경험담

두 번째

※ 여기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무단으로 전재, 편집, 재배포 등을 절대 금지합니다.



【山口県角島大橋】

※ 여기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무단으로 전재, 편집, 재배포 등을 절대 금지합니다.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김주희 도야마현 1-4

윤소희 홋카이도 히가시카와정 5-8

윤자영 돗토리현 요나고시 9-11

방민아 돗토리현 12-13

※ 여기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무단으로 전재, 편집, 재배포 등을 절대 금지합니다.

1. JET프로그램? 그게 뭐야?

저는 고등학교 때 일본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어 일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대학에 진학해서 일어일문학을 전공하였습니다. 대학 시절에 '고베(神戸)'로 교환 유학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JET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JET프로그램 시험에 합격해 현청에서 근무하는 JET 참가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JET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궁금해져서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 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도전하였는데 1차 스크리닝 시험에서 보기 좋게 '고배(苦杯)'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저와는 인연이 없다고 생각해 마음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잊고 지내면서 회사에서 일하거나 외주로 번역 일을 하면서 스스로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제대로 통·번역을 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에서 현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경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JET프로그램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전한 것이 2013년 11월이었습니다. 운이 따랐는지 1차 스크리닝 시험에 합격했고 2차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2차 면접 때는 '왜 참가하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준비하기에는 막연한 감이 있어, 과거 1년 정도 유학 생활을 하였던 효고현(兵庫県)에서 일하게 된다고 가정하고 면접을 준비하였습니다.

2. 도야마현(富山県)에서 보낸 3년, '우리 도야마'



< 겨울의 마쓰카와(松川) 강변 >

도야마현(富山県)에 배치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기뻐지만, 솔직히 걱정도 앞섰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곳에서 일하면서 생활할 수 있을까? 그 지역 분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도야마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까 생각하면 두근두근했습니다. 2014년 4월, 도야마현에 도착하자 걱정들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벚꽃으로 뒤덮인 '마쓰카와(松川)' 강변이 맘에 쏙 들었고, 도야마 시내를 달리는 노면전차가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날마다 '다테야마(立山)'를 보며 아침을 맞이하고, 마쓰카와 강변을 따라 걷는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도 모르게 '우리 도야마'라는 말이 입에 붙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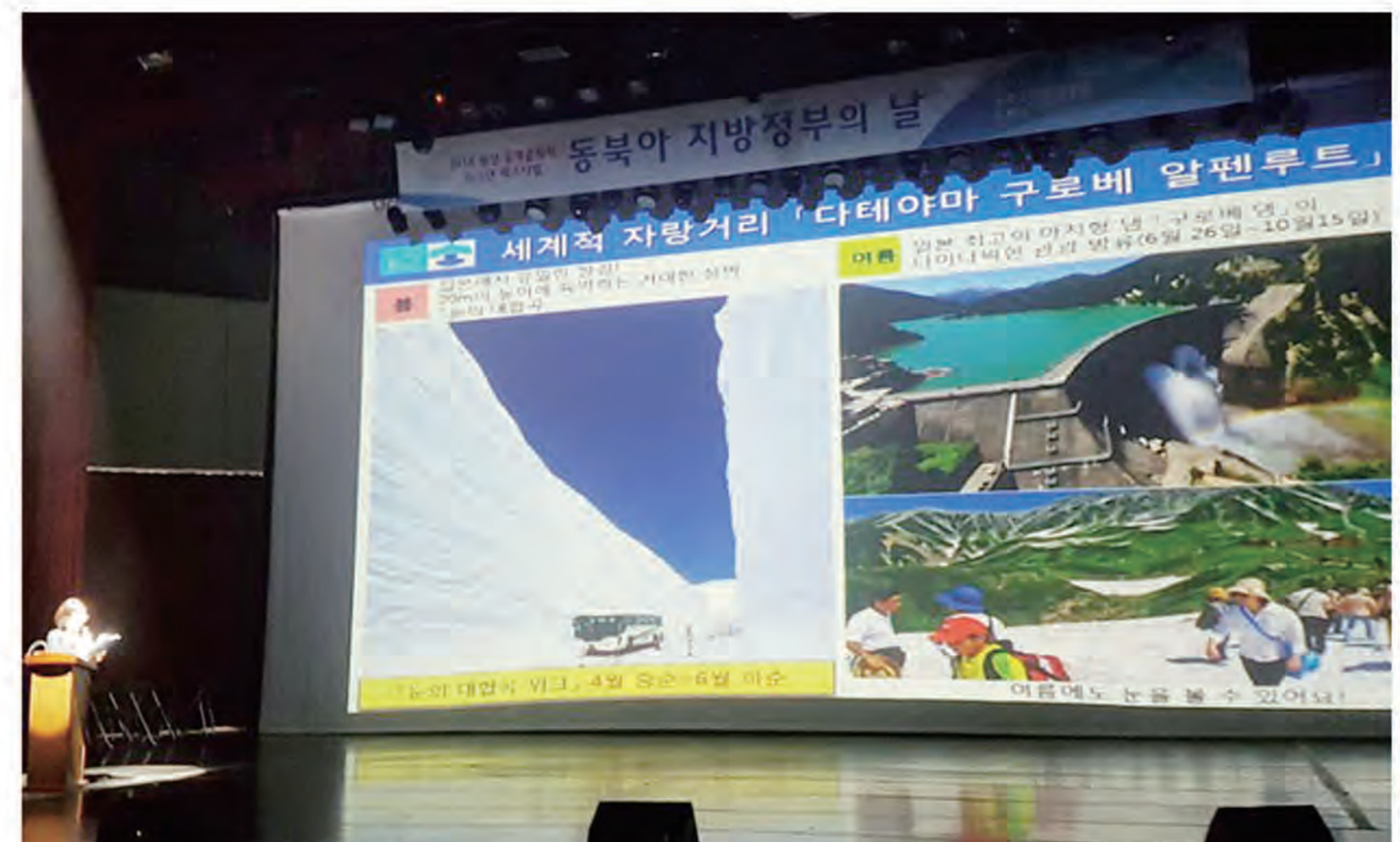
CIR 도야마현 2014~2017년
(富山県 国際交流員 2014~2017)

‘우리 도야마’현의 소개를 드리면 일본 혼슈(本州) 중앙부에 자리한 곳으로 한자로는 ‘富山’라고 표기합니다. 산(山)이 들어간 지명에 걸맞게 북알프스 히다산맥(飛騨山脈)에서 뿔어나온 다테야마 연봉이 그 늠름함을 자랑합니다. 봄에 만나는 설벽으로 널리 알려진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 루트(立山黒部アルペンルート), 귀여운 토롯코 열차(トロッコ列車)가 달리는 구로베협곡(黒部峡谷), 세계문화유산 고카야마(五箇山) 합장양식취락(合掌造り集落) 등 산과 관련된 관광자원이 풍부합니다. 서쪽으로는 도야마 앞바다와 다테야마가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다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클럽’에 합류했고, 황금 어장이 형성되어 있어, 방어, 매오징어(불뚱꿀뚜기) 등 신선한 해산물이 많이 잡히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와는 스포츠, 문화, 예술 분야에서 교류 협정을 맺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매력이 넘치는 도야마에서 현청 국제과에 소속되어 3년 동안 일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은 현청에서 근무하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국제교류센터’로 출근하여 ‘한국어 강좌’와 ‘국제 이해 강좌’ 등의 업무를 하였습니다. 한국어 강좌에서 저는 선생님의 입장이지만, 저보다 연세가 있는 수강생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오히려 제가 배우는 점이 많았습니다. 일본, 도야마에 대해서 그리고 일상생활과 삶의 지혜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강좌 시간 외에도 평소에 많이 신경 써주시고 챙겨주셔서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제 이해 강좌’는 주로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를 방문해 한국을 소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 스스로가 한국에 대해서 생각보다 깊이 알지 못했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국을 소개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겪고 조금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이 한국에 대해서 알아가고 한국의 놀이를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너무 즐겁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자체마다 특색이 있습니다만 주로 현청의 경우, 업무상으로 지역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 국제교류센터에서의 업무는 저에게 있어서 일종의 활력소 같은 존재였습니다.

현청에서의 업무는 국제 교류 업무 이외 다른 과로부터의 업무 의뢰나 현 내 학교 등의 통·번역 의뢰를 도맡아 하였습니다. 그중 국제 교류나 관광 관련 번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외 통역, 홍보 업무 등도 하였습니다. 주로 현 내 출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 한번은 관광과에서 팸투어 수행 통역을 의뢰 받아 주부(中部)국제공항까지 간 적이 있었고, 기후현(岐阜県)과 나가노현(長野県) 등 현 외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지낼 때는 가보지 못했던 한국의 지방으로 출장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잘 가보기 힘든 관광지를 비롯하여 양조장, 복지 시설, 향만 시설, 발전소 등을 방문하여 출장을 통해 귀중한 경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 에어서울 취항 기념 예방 통역 >

< 도야마 홍보 프레젠테이션(강원도 G-1 페스티벌) >



제가 근무할 당시, 도야마현에는 저 말고도 영어권, 중국, 브라질, 러시아에서 국제교류원들이 와 있었는데, 덕분에 더 즐거운 'JET 라이프'를 보냈습니다. 현청 내에는 5개국의 국제교류원과 시청의 국제교류원이 매년 2월, 'JET세계축제'라는 이벤트를 직접 기획해서 개최합니다. 각자 코너를 하나씩 맡아서 어떤 내용으로 채울지 고민하고 준비하면서 본인을 도와줄 사람을 외국어지도조수 및 현 내 거주 일본인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섭외하기도 합니다. 'JET세계축제'는 매년 400명 가량의 현 내 남녀노소가 방문하는 큰 이벤트로 자리잡았습니다.



< 'JET세계축제' 홍보 >



< JET프로그램 신규 참가자 '다테야마' 견학 >

3. 다시 한국으로, 제2의 JET 라이프?!

도야마에서 3년 차 국제교류원 생활을 하면서 4, 5년 차 계약 갱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자체마다 사정을 다를 수도 있겠지만, 3년 차를 맞이하는 국제교류원이라면 누구나 고민하리라 생각합니다. 더 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향후 진로를 심사숙고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계약 갱신을 앞두고 원래 하고 싶었던 통·번역을 제대로 공부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귀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당분간 휴식을 취하고 통·번역대학원 입시 준비를 시작했고 원하는 대학원에 합격하여 올해 3월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한편, 귀국한 후에는 'JETAA 대한민국지부' 대표직을 맡게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JETAA'는 JET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전 세계에 지부가 있는 동창회라고 할 수 있는데, 각 지부는 그 나라에서 일본과의 교류에 일조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JETAA 대한민국지부'의 경우에는 JET프로그램 설명회와 한일교류말하기대회를 주최하며, 한국 내 JET프로그램 홍보에 힘을 쏟는 한편, 관계 기관의 행사를 돕기도 합니다.

JETAA 대한민국지부의 대표로 활동하면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저는 JETAA 활동을 '제2의 JET 라이프'라고 부릅니다. 장소만 바뀌었다 뿐이지, 한일 교류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JETAA 대한민국지부 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의의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 앞에 서면 긴장하는 탓에 회장이나 대표직 같은 자리는 나서서 맡으려 한 적이 없었고, 고작해야 부회장, 부반장을 몇 번 경험한 저로서는 처음으로 대표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스스로가 대표라는 자리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최소한 어떤 뜻인지는 어렵듯이 알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아서 관계자 분들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지만, JETAA 활동이 제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4. JET프로그램 이렇게 하면 된다?!

JET프로그램에 응시할 때는 'JET 시험에는 어떤 사람들이 통과할까?'와 동시에 '어떤 사람을 원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국 후 JETAA 대한민국지부의 활동을 하면서, JET프로그램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업무가 가능할 정도의 일본어 실력이 필요하겠지만, 일본어를 잘하는 순서대로 뽑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문화권과 다른 부분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국제 교류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차 스크리닝 시험은 시험 범위라고 할 만한 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시험이지만, 1차 스크리닝 시험에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차 스크리닝 시험은 잘 준비해두면, 나중에 국제교류원으로 일을 할 때 좀 더 수월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지자체는 몇 곳인지,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 유산은 몇 개인지, 그 유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은 물론 정치나 사회, 경제 분야에 대한 생각까지 질문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제교류원 업무를 해보면서, 1차 시험에서 어떤 소양을 요구하는지 어렵듯이 알 것 같았습니다. JET프로그램 참가자로서 어떤 업무를 하게 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기다릴 것입니다.

2차 면접은 자신이 왜 JET여야 하는지, JET로서 어떤 교류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조직에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류'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것입니다. 1차 시험에서 소양을 평가 받는다면, 2차 면접에서는 국제교류원으로서의 자질을 평가 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2차 면접은 자신이 국제교류에 적합한 사람임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보다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밝고 적극적으로 면접에 응했던 점이 합격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친구나 지인도 없는 타지에서 국제교류원으로서 일하고 생활하면서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는가 하면, 힘들고 서러운 일도 생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JET 라이프를 만들어갈지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JET 참가자로서 임기를 마쳤다고 '사요나라'가 아니라, JET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인연'을 소중히 하고 계속해서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만나게 돼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JET는 영원한 JET'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여기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무단으로 전재, 편집, 재배포 등을 절대 금지합니다.

1. 꿈으로 가는 길목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과, 좋아하는 것은 직업과 별개로 두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전 전자입니다!

좋아하는 일본어로 먹고살겠다는 결심을 한 저는 취직 안 되기로 유명한 어문학부에서 일본어를 전공했습니다. JET프로그램을 알게 된 것은 홋카이도(北海道)에서 교환 유학을 하던 때였습니다. 우연히 참가한 일본의 설날 이벤트에 이름 모를 일본 스태프가 저에게 한번 도전해 보라고 권했던 것이 계기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지자체를 잇는 민간 외교관의 업무가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국제교류원은 도시와 도시를 잇는 행정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 진행하기도 합니다. 제가 올바른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을지 자신은 없었지만 한번 도전해 보고 싶었습니다. 매스컴에서 다루는 일본이나 누구나 알고 있는 도쿄(東京), 오사카(大阪), 교토(京都) 같은 대도시가 아닌, 일본의 '지역 사회' 속으로 들어가 제 눈으로 일본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통·번역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던지라 일본 현지에서 통·번역 업무를 해보며 정말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은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간절한 바람이 2013년, 저에게 다시 한번 홋카이도에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2. 인구 8천 시골 마을에서 국제적인 업무를

제가 근무한 히가시카와정(東川町)은 홋카이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인구가 대략 8천명 정도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현재 한국 국제교류원 중에서는 가장 북쪽으로 배치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홋카이도에서 가장 큰 산인 다이세쓰산(大雪山)의 기슭에 위치하고 있어 시골과 겨울을 좋아하는 저는 4년 내내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었답니다. 길 가다 고양이보다 여우나 사슴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은 홋카이도 히가시카와정은 여름과 겨울의 계절 격차가 큰 곳입니다



< 홋카이도 다이세쓰산(大雪山) >

CIR 홋카이도 히가시카와정 2013~2017년

(北海道東川町 国際交流員 2013~2017)

약 3개월 정도의 짧은 여름엔 강한 햇빛을 받아 짙은 숲과 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지고 작물은 금세 자랍니다. 9월 초부터 산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6~7개월 정도 겨울이 이어집니다. 평지에는 10월 초부터 내리기 시작하는데 하룻밤 만에 무릎 위까지 쌓이는 일도 많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밤새 제설 작업을 꼼꼼하게 하는데, 제설은 보통 도로에 있는 눈을 길가로 밀거나 분사시키는 방식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차의 창문 보다 길가에 쌓인 눈벽이 더 높은 길도 있습니다

히가시카와정은 작은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국제교류에 큰 관심을 갖고 사진이나 원목 가구 등 각종 예술 문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곳이었습니다. 2013년 이후로 국제교류원, 외국어지도조수, 스포츠국제교류원이 점점 늘어나 제가 귀국할 즈음에는 총 14명의 JET참가자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국제교류원 동료는 총 9명으로 하나같이 각국의 내로라하는 뛰어난 인재들이었습니다. 유연한 사고(思考)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거침없이 행동해 업무는 물론 사적인 교류까지 즐거운 시간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 히가시카와정 JET프로그램 참가자 >

JET 업무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저는 작은 시골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업무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호 교류 협정을 맺고 있는 전라북도 장수군과, 문화 교류 협정을 맺고 있는 강원도 영월군 사이에서 두 지역의 발전을 위한 각종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했습니다. 장수군과는 주로 행정면에서, 영월군은 문화면에서 집중적으로 교류했습니다. 같은 한국이지만 지역마다 색다르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 우호 교류 협정을 맺고 있는 전라북도 장수군, 강원도 영월군과의 국제 교류 프로그램 >



여러 축제나 이벤트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국제 교류 부문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가장 큰 축제는 '고등학생 국제 교류 사진 페스티벌'입니다. 11개 국가에서 고등학생 1팀(3명 구성)이 참가해 히가시카와정에 모여 같이 사진을 찍으며 국제 교류를 다져나가는 축제입니다. 약 7박 8일 동안 벌어지는 이 축제에서는 각국 고등학생들이 히가시카와정의 여러 명소를 돌아보고 사진을 찍으며 뜨거운 우정을 나누고는 잊지 못할 추억을 가슴에 안고 돌아갑니다.



< 고등학교 국제 교류 사진 페스티벌 >

이 외에도 여러 국제교류원이 같이 진행하는 요리 교실인 '국제키친'은 식탁 위에 3개 국가 이상의 요리가 올라가는 다채로움에 항상 정원을 초과하는 신청자들로 붐볐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가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거나, 11개 국가를 여행하는 스탬프렐리 이벤트를 여는 등 지역의 학생들과도 허물없이 접할 수 있었답니다. 한국어 강좌도 주변 지역 주민들이 찾아와서 참가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한국에 대해 잘 알고 호감을 갖고 있는 강좌 수강생분들 덕분에 한국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국제키친 >



< 스탬프렐리 >

히가시카와정은 외국인 유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정내 시설을 재활용하고 인재를 재고용해 유학생들에게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인구 과소화가 일본 사회의 큰 문제가 되는 가운데 오히려 인구가 늘고 있는 드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지역 활성을 꾀하는 히가시카와정을 응원하며, 저도 4년 동안 국제교류원으로서 익힌 경험을 한국에서 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3. 또 한번 바뀐 시야

저에게 JET프로그램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정에서 만난 '역'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안겨준 '역'입니다. 학생 시절 교직을 이수하면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입장으로 교탁 앞에 섰을 때, 그 전까지 학생의 시선만 갖고 살아온 저는 시야가 크게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하늘이 얼마나 좁은 우물 속에서 바라보았던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국제 교류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JET프로그램은 그런 저의 시선을 다시 한번 바꿔주었습니다. 한국으로 출장을 올 때도 많았는데, 그때 저는 처음으로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입장에 서서 한국을 바라보았더니, 지금까지 의식조차 하지 않고 당연시해왔던 한국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JET프로그램이 일본을 잘 알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을 더욱 잘 알 수 있는 기회도 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에서도 어느 순간 시야가 바뀌는 경험을 하고, 또 그때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4년간의 경험이 앞으로 제가 한일 통·번역사가 되는 꿈을 이루는데 바탕이 되어 줄 것 같습니다.

4. JET프로그램을 꿈꾸는 분들에게

JET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다방면에서 밀도 높은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그 가치는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국제교류원을 뭐든지 다 해내는 '만능엔터테이너'라고 부릅니다. 각종 행정 분야에도 기여하지만, 주민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교육, 축제, 관광, 요리, 홍보 등 다방면을 망라해서 스스로의 능력을 100%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아가 한일 양국에 도움이 될만한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물론 문턱이 낮지 않고, 또 문턱을 넘더라도 배치처에서 뜻하지 못한 난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올바른 한국 문화를 알리고 부끄럽지 않은 한국 대표가 될 수 있을까 망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두드리면 열립니다. 당연하고 진부한 말이지만 몸소 느끼고 나서야 비로소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는 듯합니다. 모든 경험이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보탬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JET프로그램 동기분들과 선배님들이 눈부시게 활약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사회에서 나부터 한발 내딛는 공공 외교, 여러분도 함께 하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여기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무단으로 전재, 편집, 재배포 등을 절대 금지합니다.

1. JET프로그램을 접하고 '이거다!' 싶었던 순간

저는 대학에서 일본통상을 전공하였고, 2학년 때는 1년간 오사카로 교환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오사카(大阪)에서 지낸 1년은 저에게 있어서 무척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일본어를 사용하며 아르바이트도 해보는 과정에서 저는 일본 생활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오사카에서 지낸 1년간의 경험을 통해 졸업 후에 일본에서 사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환 유학을 다녀와서 진로 고민을 하던 차에 학과 사무실에 도착한 JET프로그램 안내 책자를 보고 '이거다!' 싶은 마음에 JET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능력으로 한국과 일본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또한 향후에 외교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었기에, 풀뿌리 교류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2. JET 프로그램 중의 공(公)과 사(私)에 관해

3년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업무는 제가 기획한 '오모테나시(おもてなし)' 강좌였습니다.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요나고시의 경우 기획안을 내서 통과가 되면 새로운 강좌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존의 초급 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이 실전에서 한국어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랐고, 한편으로 실제 관광지에는 통역이 가능한 인재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착안하여 요나고를 비롯한 인근 지역으로 여행 온 한국인 관광객을 안내하는 '오모테나시(극진한 대접)' 강좌를 기획했습니다. 주로 dots리현과 시마네현의 관광지, 대중교통 이용법 등을 안내할 때 쓰는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교재를 직접 제작하고, 그 교재를 바탕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강좌 이후에 학생들이 등록할 수 있는 통역 자원 봉사도 소개하면서 더욱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한국 문화 체험 특강 >

업무 외 시간에는 샤미센(三味線)을 배웠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무언가를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출장 가서 알게 된 샤미센 선생님께 부탁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시청 직원 이외의 사람들과도 친해지게 된 것은 샤미센 덕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바다가 보이는 선생님 댁에서 샤미센을 배우는 시간만큼은 다른 잡생각은 하지 않고 온전히 악기에만 집중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샤미센은 현악기와 타악기가 합쳐진 악기로, 한국에는 없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샤미센과는 별개로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시청에서 알게 된 인연으로 사진가 협회에 가입하게 되어 난생처음 찍어보는 DSLR로 단체사진전에 출품도 하고, 많은 사진전을 둘러보면서 사진을 보는 안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 샤미센 자선 공연 대기실에서 >

3. JET 프로그램 이후의 나

제가 맡은 업무 중에는 '출장 강좌'가 많았습니다. 요나고 시내의 많은 초등학교에서 한국을 알리는 출장 강좌를 나갔습니다. 그 속에서 초등학생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교류를 통해서 한일 간의 인식이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면, 그 시작은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생보다 더 연령대를 낮춰서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그림책 읽어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로 된 그림책과 일본어로 번역된 책을 함께 읽어주고, 심화 학습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간의 교류에서 통역을 맡기도 했는데, 아이들이 거리낌 없이 교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JET 생활을 통해서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교육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길로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수능을 준비하여 교육대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JET프로그램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JET 생활이 없었더라면 제가 초등교사를 꿈꾸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 초등학교 출장강좌 >



4. JET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여러분께

제 삶에는 두 가지 신조가 있습니다. '가슴 뛰는 일에는 꼭 도전하자' 와 '삶처럼 여행하고, 여행처럼 살자'입니다. JET프로그램은 정말 제 가슴이 뛰는 일인 동시에 여행처럼 살 수 있는 낯선 환경도 제공해주었습니다. 제가 JET프로그램에 지원하였을 때는 JET에 관한 정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지방에 계신 JET 경험자를 찾아서 연락하고, 그분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소개받은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아 1차 시험에 통과하였고, 면접에 임하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운이라는 것은 제가 노력한 결과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JET프로그램을 접한 순간 '이거다!'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 문의하시거나, 혹시 학교 선배 중에 경험자가 있는지 확인해보거나 JETAA 카페 등에서 많은 정보를 찾아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JET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리신다면 꼭 지원하시고 적극적으로 '운'을 잡으러 나가보세요!



< 속초시(자매도시)와의 교류 통역 >

※ 여기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무단으로 전재, 편집, 재배포 등을 절대 금지합니다.

CIR dots리현 2014~2017년
(鳥取県 国際交流員 2014~2017)

1.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 꿈

대학에서 예술학과 경영학을 전공하여 프랑스 대학원 진학을 위해 파리에 거주하던 중 진로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원점으로 돌아가 내가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가장 잘해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약 1년간 교환 학생으로 일본에서 유학을 했었고 귀국 후에는 한국으로 유학 온 외국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했는데, 제가 그 일을 할 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한일 국제 교류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에는 일본과 관련이 없는 진로를 선택하느라 한동안 잊고 살았던 일본에서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고, 특히 귀국 송별회에서 "10년 뒤에 다시 dots리현(鳥取県)으로 돌아와 제가 받은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라고 모두 앞에서 호기롭게 약속했던 인사말을 되새기며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정확하게 10년 뒤인 2014년 국제교류원으로서 dots리현에 돌아감으로써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2. 모순 가득한 시골 마을

dots리현은 때때로 '가니' 토리현 '호시' 토리현으로 탈바꿈을 시도할 만큼 일본 국내의 '가니(계)' 어획량 1위를 자랑하고 밤하늘이 하얀 도화지로 느껴질 정도로 '호시(별)'가 가득한 지역입니다. 면적도 그리 크지 않고 인구도 47개 도도부현 중 가장 적은 지자체라서 대도시와는 거리가 먼 일본의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하지만 dots리현청은 동서양을 아우르는 다양한 국적의 교류원이 근무하는, 그야말로 행정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국제 교류가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순 가득한 시골 마을입니다.



< 'World Trails Conference in Tottori' 홍보를 위해 제주 올레 걷기 대회 참가 >

제가 부임했던 2014년은 강원도와 국제 교류 협정을 맺은 지 20주년이 되는 해였기에 강원도와 dots리현에서 행정, 예술, 청소년 방문단 등 다양한 교류가 진행되었습니다. 부임 1년 차였던 저는 청소년단과 예술단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예술단으로 참가하셨던 일본 전통악기 샤미센 연주자분께서 20년 전 고등학생 시절에 청소년단으로서 강원도에 다녀오셨고 아직까지도 그 당시 교류했던 친구들과 연락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두 지역의 교류 사업이 민간 차원에서도 이렇게 뿌리 깊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고 지역 대 지역, 나아가서 한일 교류에 작게나마 이바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3. 서포터에서 전문가로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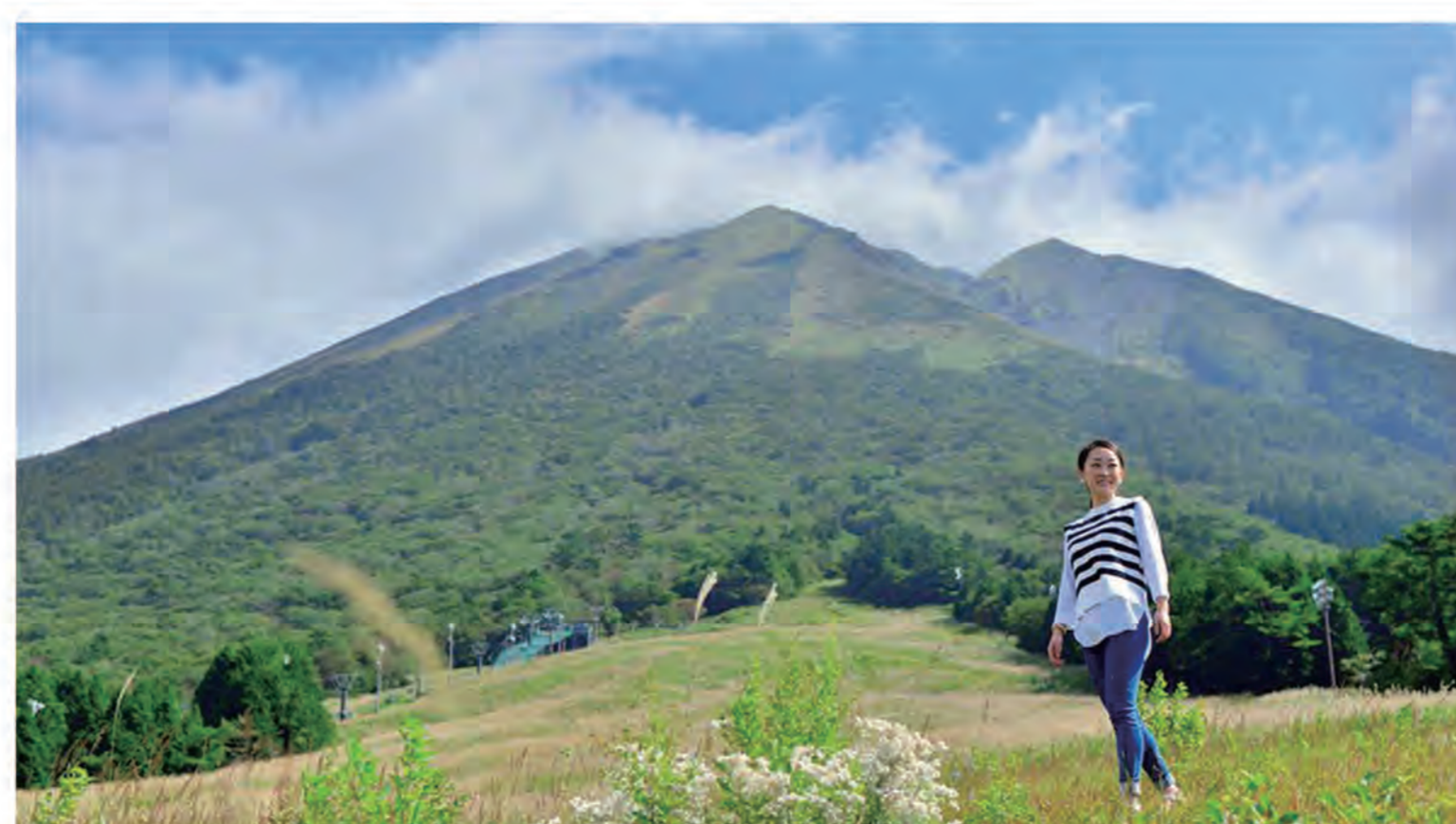
국제교류원으로 일했던 3년간, 저는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생선을 먹지 못하는 제가 수산물 세미나 업무를 맡게 되면서 그때까지 알고 지냈던 생선 이름보다 더 많은 해산물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행정자치부 교부세 담당 부서와의 교류에서는 세금 관련 지식을, 한국 케이블 채널의 연예인과 함께 했던 여행 방송 촬영에서는 연예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국제교류원으로 일하는 동안 다양한 분야의 국제 교류를 지원하면서 서포터로서가 아닌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한일 교류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술 교류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학 전공을 살려 미술 분야의 한일 교류에 이바지해야겠다고 결심했고, 현재는 일본 소재 대학원에서 20세기 초반의 한일 미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JET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전혀 모르고 살았을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조금이나마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강원 FC 임원, dots리현 지사 예방 통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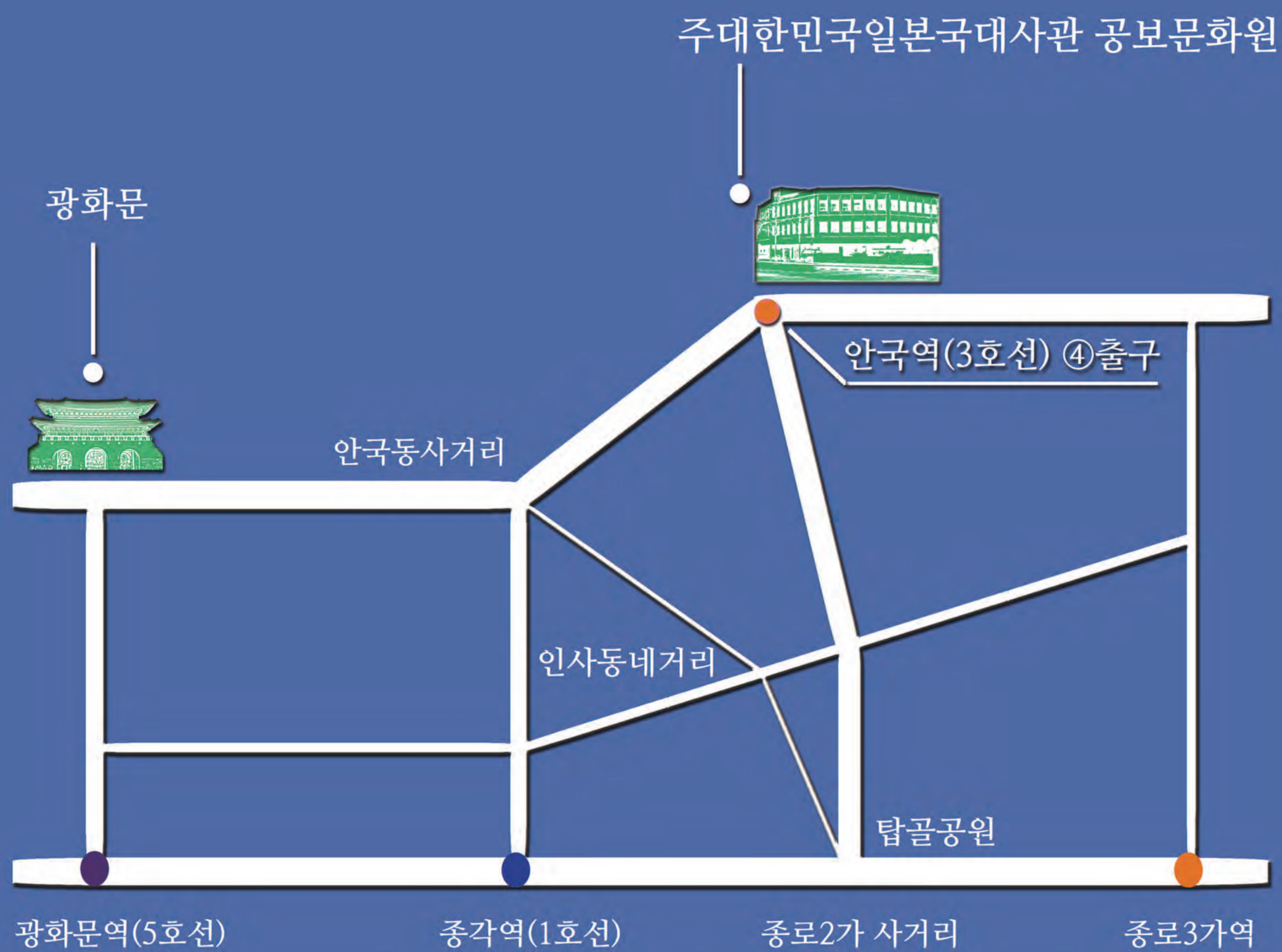
4. 모든 끝에는 시작이 함께한다

2004년 교환 유학을 다녀온 후 제가 일본에서 근무하게 되리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지만 다시 우연한 기회로 JET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dots리현과 더욱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시작을 했던 dots리현에서의 경험은 30대 이후라는 막막한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혼란스러웠던 인생을 재정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JET 프로그램 참가자로서 보낼 수 있는 기간은 한정적이지만, 덕분에 그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JET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진중하게 고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JET 프로그램에 도전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JET 프로그램은 종착역이 아닌 경유지이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동안 각자가 원하는 바를 잘 찾아내어 최종 목적지까지 즐거운 여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 일본 숙박 예약 사이트 홍보 촬영 >

※ 여기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무단으로 전재, 편집, 재배포 등을 절대 금지합니다.



※ 여기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무단으로 전재, 편집, 재배포 등을 절대 금지합니다.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문의 | 02-765-3011 ~3 (내선 140) jet@so.mofa.go.jp

JET프로그램 방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바랍니다.

이용시간 | 월~금요일 (10:00~17:30 단, 12:00~13:30 점심시간), 대사관 휴관일 제외

주소 |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4

Public Information and Cultural Center
Embassy of Japan in Korea